

존경하는 천마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평범했던 일상의 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감염의 우세종이 되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 1만 명을 넘어서 유행의 대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자 수도 연일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사람 간 접촉 증가와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 드리고 구성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소중한 가족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설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 자제하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사적모임·외출·집단행사는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등교) 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도 안전한 캠퍼스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낼 수 있도록 방역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영남대학교 감염병총괄관리본부 본부장
교육혁신부총장

김재춘